

건설수주 실적 1년새 83% 폭락

올림픽 공사 마무리·주택경기 위축
 도내 건설업체 경영난 신호탄
 공사참여 확대 프로젝트 발굴해야

도내 건설수주액이 급감했다. 일부에서는 건설경기 침체의 신호탄이라며 향후 지역 건설사의 경영난을 우려하고 있다.

동북지방통계청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강원도 건설수주액은 482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1월 2,975억원보다 무려 83.8%나 줄었다. 공공 부문 수주액은 418억원으로 23.8% 감소했다. 민간 부문은 64억원에 불과했다. 전년 동월 981억원 대비 96.9%나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호황을 누렸던 지역 건설경기가 올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한 해 도내 건설업계의 공공건설 수주액은 1조4,832억원으로 201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공주택 분양승인 실적도 전년 대비 72%가량 늘어난 2만1,233세대에 달하는 등 주택경기도 활황을 맞았다.

하지만 올해 공공건설 발주물량은 지난해보다 400억원가량 감소한 3조3,775억원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건설 특수 종료에 따라 향후 대형공사 발주도 기대하기 힘들어지면서 건설경기 전망은 더 어두워지고 있다.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도 올해 1월 592호로 1년 전 대비 77.4% 줄어드는 등 주택경기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투자 활성화와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 발굴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대한건설협회 17차 이사회 개최

유주현 회장 “진취·능동적 협회로 탈바꿈할 것”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10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6층 메라크룸에서 제17차 이사회를 열고 협회 회원부회장 선출 건 등을 논의했다(사진).

이날 이사회에서 협회는 임기 만료된 회원부회장 15명과 상임이사(대우) 6명에 대한 임명권

부회장·상임이사 임명
 신임회장에게 위임 의결

을 신임 유주현 회장에게 위임키로 의결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5월 새로 출범하는 차기 정부에 건설업계가 바라는 건설·주택 분야 핵심정책 과제

를 만들어 제안키로 결정했다.

지난 2일 협회장 취임 후 첫 이사회를 주재한 유주현 회장은 “이른 시일 내에 협회 조직을 재정비해 회원사의 권익신장을 위한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협회로 탈바꿈시키고 선거 공약사항들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kth@

<http://cnewsmarathon.com>

참가자 기념품

- ▶ 흡습속건성이 우수한 쿨톤스핀원단을 적용해 쾌적한 착용감
- ▶ 오렌지 배색으로 액티브한 스타일



활동성을 강조한 어깨라인

탄력있던 착용 통기성 우수

PRODUCT NAME 2017 건설인 마라톤 티셔츠
 COLORWAY GREY / L/ORANGE
 TEXTILE POLYESTER (COOLTON) SPANDEX

제8회 건설인 하프마라톤

4월 15일(토) 오전 9시 출발 |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



건설산업 70주년

CG 건설공제조합 Construction Guarantee 과 함께하는

제8회 건설인 하프마라톤

4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출발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8시까지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프코스
10km코스
5km코스
4.5km걸기

- 접수기간** 2017년 1월 23일(월) ~ 3월 24일(금)
- 참가부문** 하프코스, 10km코스, 5km코스, 4.5km 걸기 (선착순 10,000명 마감)
- 시 상** 하프, 10km, 5km코스 남녀 각 1~5위
최다단체상(건설부분-일반부문 1~7위) / 다양한 경품 시상
- 참가방법** 홈페이지(<http://cnewsmarathon.com>)에서만 참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건설인 마라톤 사무국 Tel.02-785-0582~3